

북마크릿을 활용한 LibraryLookup 서비스 비교·분석

The Comparison & Analysis of LibraryLookup Service Using Bookmarklets

구중억,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jekoo@kbsi.re.kr

이응봉, 충남대학교, eblee@cnu.ac.kr

Gu Jung-Eok,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Lee Eung-B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초 록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장애가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OPAC의 접근성과 검색성을 향상시키고, 도서의 검색, 식별 및 브라우징의 도구로써 ISBN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북마크릿은 웹브라우저의 '즐거찾기에 추가' 또는 '연결(Links)' 툴바에 저장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자바스크립트이다. 그리고 오픈소스인 북마크릿은 온라인서점의 웹페이지에서 ISBN을 추출한 다음, 해당 ISBN으로 도서관의 OPAC에서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검색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새로운 환경인 Web 2.0, Library 2.0, OPAC 및 북마크릿에 대해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해외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네 가지 유형의 북마크릿에 대한 적용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그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서 국내 도서관의 OPAC과 온라인서점에서 북마크릿을 활용한 LibraryLookup 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안하였다.

1. 서 론

최근 국내·외 도서관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Web 2.0과 Library 2.0의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Web 2.0은 '기술도, 마케팅 용어도 아닌 이용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용자 중심의 참여와 개방에 바탕을 둔 플랫폼으로서의 웹'을 말한다. 그리고 Web 2.0의 개념에서 차용된 Library 2.0의 일반적인 이해는 도서관이 오랜 시간 동안 추구해 온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Web 2.0의 이념과 웹 기술 및 서비스를 응용하고 실천하며 사고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다.

Chad와 Miller(2006)는 영국의 도서관 시스템 벤더인 Talis사의 백서를 통해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 장애가 없는 도서관, 참여를 유도하는 도서관, 유연성을 지니고 최상의 소스를 이용한 도서관 등 정보시스템 관점의 Library 2.0 관련 4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도서관의 현재 가치와 미래 도서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OCLC(2005)의 이용자의 정보검색 이용행태 분석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정보검색의 시작점으로 84%가 검색엔진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도서관 웹사이트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ibrary 2.0의 실천모델과 기술의 하나로써 북마크릿(bookmarklet)은 이용자가 도서관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온라인서점에서 직접 로컬 도서관의 OPAC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오픈소스인 북마

크릿은 웹브라우저의 '즐거찾기에 추가' 또는 '연결(Links)' 툴바에 저장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자바스크립트이다. 또한 북마크릿은 온라인서점의 웹페이지에서 ISBN을 추출한 다음, 해당 ISBN으로 로컬 도서관의 OPAC에서 관심도서를 검색할 수 있어 간단하지만 강력한 검색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해외의 도서관 시스템 벤더, 도서관, OCLC 등은 이용자가 온라인서점의 웹페이지에서 북마크릿을 활용하여 로컬 도서관의 소장 및 대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툴바에 북마크릿을 추가해 놓고 온라인서점의 웹페이지에서 ISBN을 추출하여 로컬 도서관의 OPAC에서 도서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Tennant(2004)는 '혁신은 도서관이 구글이나 아마존과 경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큰 아이디어는 미래를 그릴 수 있지만, 작은 솔루션은 미래를 개발해 나갈 수 있다'면서 북마크릿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도서관의 OPAC과 온라인서점에서는 Web 2.0과 Library 2.0의 구성요소와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pervasive library)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마크릿은 OPAC의 접근성과 검색성을 향상시키고, 도서의 검색, 식별 및 브라우징의 도구로써 ISBN의 활용가치를 높혀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새로운 환경인 Web 2.0, Library 2.0, OPAC 및 북마크릿에 대해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해외에서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네 가지 유형의 북마크릿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북마크릿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서 국내 도서관의 OPAC과 온라인서점에서 북마크릿을 활용한 LibraryLookup 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안하였다.

2.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새로운 환경

2.1 Web 2.0

Web 2.0이란 용어는 2004년 10월 O'Reilly와 MediaLive International이 주최한 컨퍼런스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 Dale Dougherty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Web 2.0의 주창자인 O'Reilly(2005)는 2005년 9월 「What Is Web 2.0」이라는 논고를 통해 Web 2.0 시대로의 전환은 '웹의 플랫폼화'에 있고, Web 2.0은 '차세대 소프트웨어에 대한 디자인 패턴과 비즈니스 모델'이라면서, Web 2.0을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의 핵심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 플랫폼으로서의 웹
- 집단지성을 이용한 정보의 증대
- 데이터 중심의 경쟁력 확보
-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개방과 확장이 가능한 프로그래밍 모델
- 다양한 하드웨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 더 나은 이용자 경험

2.2 Library 2.0

Library 2.0이라는 용어는 Albanese가 2004년 4월 Library Journal의 「Campus Library 2.0」을 통해 최초로 사용하였으나, 그 당시 Web 2.0 개념이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Web 2.0에 기초한 Library 2.0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Web 2.0에 기초한 Library 2.0 개념은 2005년 9월 Michael Casey가 자신의 블로그인 LibraryCrunch에서 도서관 OPAC에서 Web 2.0의 응용에 관한 연구와 견해를 밝히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Ken Chad와 Paul Miller가 2005년 9월 Talis사의 백서인 「Do libraries matter? The rise of Library 2.0」를

통해 Library 2.0 관련 4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Library 2.0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갖게 하였다. 또한 Michael Stephens가 2005년 10월 Internet Librarian 회의에서 도서관 웹사이트와 관련된 Library 2.0 개념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면서 Library 2.0 개념이 점차적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다. 한편 Paul Miller가 2005년 10월 전자저널인 Ariadne에 「Web 2.0: Building the New Library」를 게재하면서 도서관계의 관심과 토론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Stephens(2006)는 'Library 2.0의 원칙은 장애를 타파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종 도서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장애, 시간과 장소의 장애, 전통적인 서비스 방법이 가져오는 장애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 이상적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서관의 정보, 엔터테인먼트,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Brevik(2006)은 Library 2.0이 도서관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에 접근하는 시점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도서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Library 2.0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Web 2.0 기술은 RSS, 블로그(blog), 위키(wiki), 태깅(tagging), 포드캐스트(podcast), 폭소노미(folksonomy), 플리커(flickr), 오픈소스(open source), 아작스(AJAX),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 매쉬업(mashup),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개방형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웹서비스(Web Services), 그리스몽키(greasemonkey), 플렉스(flex), 아트라스(atlas), 북마크릿(bookmarklet) 등이 있다.

<표 1>과 같이 Web 2.0 관련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높은 충성도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표 1> Web 2.0 관련 기술을 활용한 Library 2.0의 적용 유형 및 서비스 사례

구분	적용 유형	서비스 사례
R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최신정보 - 도서관 특집정보 - 신착도서 목록 - 신착저널·목차 - 예약도서 도착 통지 - 도서반납 기한 알림 - OPAC 검색결과 - 웹DB 검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공과대학교 청암학술정보관 - New York Public Library: RSS Feeds - 香港科技大學圖書館(HKUST Library) - 農林水産研究情報センター(AFFRC) - 廈門大學圖書館(Xiamen University Library) - 台東大學圖書館(National Taitung University Library) -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 SCOPUS Search Alert
블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업무활동 - 도서관 최신정보 - 도서관 웹사이트 - 회원간 정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versity of Pennsylvania Library: Library Staff Blog -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blog@your library - Ann Arbor District Library - 과학기술정보 포털서비스(KISTI)
위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업무활동 - 사서간 정보공유 - 도서관 이용지도 - 주제정보 서비스 - 참고자원 서비스 - 종합목록(목차, 주석, 평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versity of Connecticut Libraries's Staff Wiki - Library Success: A Best Practices Wiki - Oregon Library Instruction Wiki - SJCPL Subject Guide Wiki - Butler University Libraries' Reference Wiki - Open WorldCat(WikiD)

2.3 OPAC

IFLA는 2005년 9월 「Guidelines for 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OPAC) Displays」를 통해 도서관들이 OPAC의 디스플레이를 개선하고, 목록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재설계하기 위한 표준으로써 사용해야 할 지침으로 38개의 권장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IFLA는 2005년 10월 「Designing and Building Integrated Digital Library Systems - Guidelines」에 관한 보고서에서 OPAC은 다양한 정보자원과 포맷의 콘텐츠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미국 대학도서관들은 OPAC과 통합도서관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캘리포니아 대학도서관이 2005년 12월 발표한 「Rethinking How We Provide Bibliographic Services for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인디애나 대학도서관이 2006년 1월 발표한 「A White Paper on the Future of Cataloging at Indiana University」, 코넬 대학도서관이 2006년 3월 발표한 「The Changing Nature of the Catalog and its Integration with other Discovery Tools」 보고서는 모두 도서관 이용자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개방된 관점에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OPAC 형식과 기능의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Blyberg(2006)는 향후 도서관의 OPAC은 도서관과 이용자 커뮤니티 모두에서 도서관 자원에 대해 접근, 공유 및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도서관의 OPAC은 단순화된 접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목록 데이터에 새로운 가치와 고급 기능을 추가하고, 모든 도서관 자원을 서로 연결시켜 활용도와 검색성을 높이며, 표준 스펙에 기반을 둔 OpenAPI와 색인을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장애없이 도서

관 자원을 자유롭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자원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한 웹브라우저와 Web 2.0 관련 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도서관의 OPAC 검색기능 및 검색결과 디자인과 인터페이스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2.4 북마크릿

웹브라우저의 북마크는 그 자체로도 유용하지만 북마크릿 개념과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강력한 도서관 서비스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북마크릿은 웹브라우저 상에서 웹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을 자바스크립트와 북마크 기능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북마크릿은 일반적인 웹브라우저의 북마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북마크릿은 웹브라우저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웹페이지에 표시되는 방식 변경, 데이터 추출, 선택한 내용의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가 아마존에서 도서를 살펴보고 로컬 도서관에서 어떤 출판 형태로 해당 도서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특정 ISBN으로 직접 검색하는 것보다 더욱 유용하다.

Levine(2003)은 북마크릿이 아주 단순하면서 지능적인 훌륭한 도구라고 평가하고, 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며, 일반 이용자가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웹사이트에 북마크릿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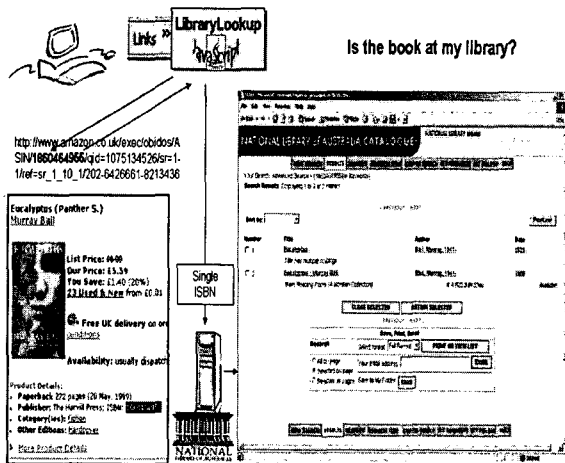
3. 북마크릿의 해외 적용사례 비교·분석

3.1 LibraryLookup Project

세계적 IT전문지인 인포월드의 컬럼리스트인 Jon Udell은 아마존이나 반즈 앤 노블(Barnes and Noble) 등 온라인서점에서 ISBN을 포함하는 URL에서 ISBN를 추출한 후 로컬 도서관의 OPAC에 해당 ISBN을 보내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북마크릿을 개발하였다.

LibraryLookup 프로젝트는 2002년 12월 Innovative, Voyager, iPac, DRA, Talis 등 도서관 시스템 벤더의 OPAC 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한 5개의 북마크릿으로 시작되었다. 2006년 6월 현재 LibraryLookup 홈페이지에서 18개 도서관 시스템 벤더의 목록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북마크릿 생성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도서관 시스템 벤더의 목록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Jon Udell이 개발한 사례를 이용해서 독자적인 북마크릿을 설계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LibraryLookup 북마크릿은 동일한 도서에 대해 하드커버, 페이퍼백, 소프트커버, 양장본 등 출판 형태에 따라 ISBN이 다르기 때문에 Jon Udell의 웹사이트에서는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하드커버에 대한 검색을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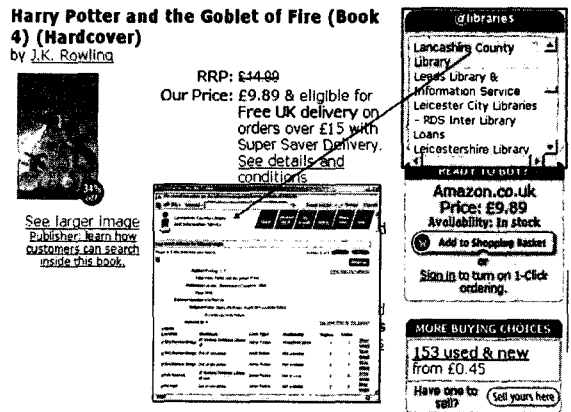


<그림 1> LibraryLookup 서비스 구성도

3.2 Greasemonkey User Scripts

Greasemonkey는 이용자가 특정 웹사이트를 수정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로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Firefox 웹브라우저의 확장 모듈로써 웹페이지에 이용자 스크립트인 DHTML(Dynamic HTML)을 추가해 웹페이지의 디자인이나 상호작용 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다. Firefox 웹브라우저에서 이용자 스크립트를 사용하려면 Greasemonkey를 우선 설치한 후 원하는 특정 스크립트를 찾아 로딩하면 된다. User Scripts 웹사이트에는 아마존과 도서관 관련 이용자 스크립트가 다수 공개되어 있다.

Talis(2006)는 Greasemonkey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ISBN으로 인식되는 도서가 Holdings Lookup과 Bibliographic Deep Linking 서비스 기능을 갖는 Talis Platform에서 해당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영국의 아마존 웹페이지에 「@libraries」 패널을 삽입하여 소장 기관 목록을 표시해주고, 패널에 리스트된 도서관을 클릭하면 해당 도서관의 검색결과를 새로운 창에 열어준다(그림 2 참조).



<그림 2> Amazon.co.uk Library Holdings Lookup

3.3 xISBN

OCLC의 xISBN 서비스는 WorldCat 데이터 베이스에서 개별적인 지적 저작물과 관련된 ISBN을 제공하는 실험적인 웹서비스이다.

OCLC의 xISBN 북마크릿은 Jon Udell의 LibraryLookup 홈페이지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되었고, 로컬 도서관의 OPAC에서 동일한 저작의 연관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다른 ISBN들을 포함하도록 기능을 개선한 것이다.

OCLC는 2006년 6월 현재 127개 로컬 도서관의 OPAC에서 활용이 가능한 xISBN과 FRBR 북마크릿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xISBN 기능을 포함하게 되어 동일한 저작 클러스터에서 개별 자료를 위한 WorldCat을 탐색함으로써 모든 버전, 판 등을 포함하는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3.4 LibX

LibX는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원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Firefox 웹브라우저의 확장 모듈이다. 그리고 LibX는 도서관의 OPAC과 OpenURL 링크 서버에 대한 접속을 통합하면서 도서관 접속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주기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또한 LibX는 XML 이용자 인터페이스(XML User Interface Language, XUL)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구현되었다. 아울러 LibX는 툴바(toolbar) 이용자 인터페이스, 웹페이지에 삽입된 큐(cues), 콘텍스트(context) 메뉴 등을 통해 도서관 자원에 쉽고 즉각적인 접속을 제공한다.

4. LibraryLookup 서비스 비교·분석

이상과 같이 해외에서 개발되어 Library Lookup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네 가지 유형의 북마크릿을 비교·분석하였고, 이들 북마크릿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북마크릿은 URL에 ISBN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웹사이트와 ISBN 검색을 허용하는 모든 도서관에 적용된다.
- 북마크릿은 플랫폼인 웹브라우저에서 작동되고, 다양한 도서관에서 활용이 가능한 오픈소스이다.
- 이용자는 도서관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온라인서점의 웹페이지에서 직접 로컬 도서관의 OPAC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북마크릿은 툴바보다 마음대로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북마크릿은 도서의 검색, 식별 및 브라우징의 도구로써 ISBN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 도서관 이용자는 온라인서점에서 도서 검색 시 한 번의 클릭으로 자판 또는 인접 도서관의 소장정보 확인, 대출정보 조회 및 배가위치 파악 등을 통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ISBN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이용자에게 도서관 이용 경험을 제공하여 도서관 마케팅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북마크릿의 적용사례 비교·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북마크릿은 웹페이지의 URL에 ISBN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만 작동하고 아직까지는 검색에서만 유용하다.
- 북마크릿을 활용하여 도서관의 OPAC에서 도서의 소장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 또는 상호대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필요하다.
- 하나의 저작은 다양한 출판 형태에 따라

ISBN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 즉 실제로 ISBN 검색은 도서관에 존재하는 다른 형태의 출판물을 누락시킬 수 있다.

- 도서관에서 신간 도서가 구입되어 있지 않거나 구간 도서의 목록에 ISBN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가 필요한 도서를 검색할 수 없다.
- 하나의 북마크릿은 대부분 한 가지 기능만 갖추고 있고, 특정 웹브라우저 전용으로 만들어진 북마크릿은 모든 윈도우 플랫폼에서 실행될 수 없다.
- 도서관 이용자가 북마크릿을 활용하기 위해 웹브라우저에 이용자 모듈과 스크립트를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부담이 따른다.
- 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성, 사용성 및 검색성을 향상시키고 온라인서점은 수익증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 대립적인 입장은 북마크릿을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5. 결론

도서관의 원리는 1931년 S. R. Ranganathan이 발표한 '도서관학 5법칙', 1995년 M. Gorman이 제안한 '새로운 도서관학의 5법칙', 2004년 J. Thompson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추출한 17개항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도서관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Web 2.0과 Library 2.0의 개념 역시 개방성, 연결성, 참여지향 및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brary 2.0의 개념과 응용 중에서 해외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네 가

지 유형의 북마크릿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그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도서관 이용자, 도서관과 사서, 온라인서점 측면에서 북마크릿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이용자는 온라인서점에서 관심 도서를 검색하고 동시에 '도서를 구매할 것인지? 대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관심 도서의 출판본 또는 인쇄본을 자관 또는 인접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를 도서관 웹사이트를 경유하지 않고 북마크릿을 활용하여 직접 OPAC을 검색할 수 있다.

둘째, 도서관과 사서는 FRBR 형태로 된 OPAC에 ISBN 검색을 자동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물의 출판본/인쇄본에 배정된 ISBN이 알려진 자원을 도서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정확하게 검색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온라인서점은 '도서 대출이 온라인서점의 이익을 감소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해서 매출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서관과 개방적 협력관계와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독서 습관을 변화시켜 도서 판매자의 비즈니스 기회를 넓혀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의 OPAC과 온라인서점에서 북마크릿을 활용한 LibraryLookup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북마크릿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그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본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의 ISBN 활용상태에 관한 비교·분석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여 국내 도서관의 OPAC과 온라인서점에서 응용 가능한 북마크릿의 기본조건과 적용모델을 도출하고, 북마크릿을 활용한 실질적인 LibraryLookup 서비스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구중익, 이용봉. 2006. Open API 기반 OPAC 2.0 서비스 구현 및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315-332.
- Bailey, Annette. 2006. LibX - a Firefox extension for enhanced library access. 『Library Hi Tech』, 24(2): 290-304.
- Blyberg, John. 2006. "SocialPACs, Community and... Sourdough." [cited 2006.6.21].
<<http://www.blyberg.net/2006/05/31/social-pacs-community-and-sourdough/>>
- Bookmarklet. [cited 2006.6.21].
<<http://en.wikipedia.org/wiki/Bookmarklet>>
- Brevik, Thomas. 2006. "Library 2.0 = MyLibrary." [cited 2006.6.21].
<<http://lib1point5.wordpress.com/2006/04/12/library-20-mylibrary/>>
- Chad, Ken and Miller, Paul. 2005. "Do Libraries Matter? The Rise of Library 2.0." [cited 2006.6.21].
<http://www.talis.com/downloads/white_papers/DoLibrariesMatter.pdf>
- Greasemonkey. [cited 2006.6.21].
<<http://greasemonkey.mozdev.org/>>
- Karp, David A. 2005. DIY Internet: Improve your favorite Web sites in Firefox with Greasemonkey user scripts. 『PC Magazine』, 24(22): 117-118.
- Kenney, Brian. 2003. LibraryLookUp Simplifies Searches. 『Library Journal』, 128(3): 23-26.
- Levine, Jenny. 2003. "LibraryLookup: Go to Amazon, Find Library Book." [cited 2006.6.21].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271236.html>>
- LibX - A Firefox Extension for Libraries. [cited 2006.6.21].
<<http://www.libx.org/>>
- O'Reilly, Tim. 2005. "What Is Web 2.0." [cited 2006.6.21].
<<http://www.oreillynet.com/pub/a/oreilly/tim/news/2005/09/30/what-is-web-20.html>>
- OCLC. 2005. "Perceptions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Resources." [cited 2006.6.21].
<http://www.oclc.org/reports/pdfs/Percept_all.pdf>
- Stephens, Michael. 2006. "Library 2.0 Discussion Up at SirsiDynix." [cited 2006.6.21].
<http://tametheweb.com/2006/02/library_20_discussion_up_at_si.html>
- Talis. 2006. "Amazon.co.uk Library Holdings Lookup - Greasemonkey plug-in." [cited 2006.6.21].
<<http://www.talis.com/tdn/greasemonkey/amazon-libraries>>
- Tennant, Roy. 2004. Big Ideas and Small Solutions. 『Library Journal』, 129(5): 26.
- The LibraryLookup Project. [cited 2006.6.21].
<<http://weblog.infoworld.com/udell/stories/2002/12/11/librarylookup.html>>
- xISBN and FRBR Bookmarklets. [cited 2006.6.21].
<<http://www.oclc.org/americalatina/es/research/announcements/2004-01-26.htm>>